

수출효자 전남 화공품·광주 가전

〈전년비 30%↑〉

〈6.5%↑〉

광주세관, 1~5월 품목별 수출·입 실적 분석

타이어·선박은 급감...무역수지 흑자 28% 줄어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 수출 품목 중 화공품과 석유제품은 호황을, 타이어와 선박은 불황을 맞고 있다.

26일 광주세관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광주·전남 품목별 수출입 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전남지역 수출은 화공품이 30.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석유제품 29.6%, 철강제품 11.5% 순으로 늘었다. 품목별로 11.7%, 전품목기준으로는 13.6%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수출 호황을 반영한다. 광주지역 수출은 가전제품(6.5%), 자동

차(4.9%), 반도체(1.8%) 품목 순으로 증가했다. 이들 증가 품목은 전년과 비교해 품목별 1.9%, 전체 품목에서는 2.6% 늘어난 것으로 전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이다.

반면 전남의 선박 등 수송장비 수출이 47.9%나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기계류도 6.9% 감소했다. 지난해 불어닥친 조선산업의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주 역시 타이어 수출이 15.9%나 줄었으며, 기계류와 철강제품도 각각 6.4%, 1.8% 감소세를 보였다. 금호타이어의 수출

실적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전남의 경우 석탄이 154.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철광 57.2%, 원유 48.7%, 석유제품 17.1%, 화공품 11.2% 순으로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품목별로는 50.8%, 전품목에서는 45.2%는 수치로 증가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광주는 고무와 가전제품 수입이 각각 44.9%, 18.8% 늘었다. 전년대비 품목별로 6.0% 감소했고 전제품목 기준으로는 0.8%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 감소 품목은 광주 지역 철강제품이 23.2% 감소했고, 기계류·반도체·화공품도 줄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주요 품목 중 수입이

감소한 것은 없었다.

한편,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광주·전남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4%, 수출은 9.8%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49억4400만 달러 흑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68억8300만 달러)과 비교해 무역수지 흑자 폭이 28.2% 줄었다.

광주세관본부 관계자는 "광주는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남은 수출액 1위인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과 아시아·미국 등의 수출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88.66 (+10.06)

금리 (국고채 3년) 1.69% (0.00)

↓ 코스닥 668.36 (-0.57)

↓ 환율 (USD) 1137.10원 (-1.70)

2388.66...코스피 또 새역사

IT주 상승 주도...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고가 경신

코스피가 또다시 새 지평을 열었다.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모두 바꿔 썼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6포인트(0.42%) 오른 2,388.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9일 작성한 종가 기준 최고치(2,381.69)를 6.97포인트 차로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다.

2.49포인트(0.10%) 오른 2,381.09에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에 일찌감치 장중 최고치(2,387.29·6월 14일)를 경신하고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러 장 마감 직전에는 2,390.70까지 치솟아 전일미달의 2,390 고지까지 밟았다. 꾸준히 순매수세를 유지한 개인은 이날 214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탤. 출근 '팔자'를 지속하던

외국인도 이날 장 종료를 앞두고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331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기관은 오후 들어 매도세로 돌변, 111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정보기술(IT) 주의 급상승이 이날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함께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1.39% 올랐고, SK하이닉스도 3.85% 오르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각각 241만8천원, 6만7천500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업 58%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검토"

사람인 364곳 설문...54% "신규채용 줄어들 것"

비정규직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6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364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고용업체 143개 가운데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는 곳은 전체의 58.0%(83개)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중소기업(58.7%)과

대기업(57.9%), 중견기업(55.0%) 등이 모두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60개사(42.0%)는 그 이유로 ▲업무량이 유동할 경우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실업난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신규채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기업(364개)의 절반이 넘는 53.8%가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4.1%였고, 전체의 12.1%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휴대전화 일요일엔 개통 안됩니다

이통3사 내달부터 휴무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 휴대전화 개통이 중단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는 7월부터 일요일 전산 휴무를 현재 2.4번째 주에서 모든 일요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2일을 시작으로 일요일마다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등 개통과 관련한 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일반 영

업 활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와 유선통신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작년 9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구성된 '이동통신 3사 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최근 매주 전산 업무를 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신 3사의 일요일 휴무 결정에 집단 상가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원대 김밥 사라졌다

분식 물가도 고공행진

구내식당 식사비 상승도

김밥과 떡볶이, 라면 등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즐겨 찾는 분식집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분식 및 김밥전문점 생산자물가 지수가 130.14로 작년 같은 달(122.33)에 비해 6.4%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자물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와 흡사하다. 이 기간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승폭(3.5%)의 두 배에 가깝다.

중식(3.5%), 한식(2.4%), 일식(1.8%), 서양식(1.6%), 치킨전문점(1.6%) 등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훨씬 컸다.

분식 및 김밥전문점 생산자물가 지수는 2년 전(117.0)에 비하면 11.2% 뛰어서 총지수 상승폭(0.4%)과 확연히 차이가 났다. 김밥과 떡볶이, 라면(외식)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김밥과 떡볶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각각 8.6%, 2.7% 올랐다. 라면(외식)은 4.8%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이다.

서울시 물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26개 식당에서 김밥 평균 가격은 2140원이었다.

최고가는 3000원(4개 식당), 최저는 1500원이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1000원짜리 김밥은 보이지 않는다.

작년 5월에 조사한 22개 식당 김밥 가격 평균은 2060원이다. 2년 전에는 45개 식당 평균 김밥 가격이 1800원이었다. 가장 비싼 김밥은 2500원짜리였고 절반 이상인 25개 식당에서 1000원대에 판매했다. /연합뉴스



“삼성 무풍에어컨 잘 나갑니다” 26일 경기도 일산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서울물류센터에서 에어컨 설치 엔지니어들이 흥행몰이를 일으키고 있는 ‘무풍에어컨’의 배송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목포·광양항 물동량 감소

5월 전국 항만 전년비 0.5% 하락...컨테이너 처리는 늘어

올해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항과 광양항의 물동량도 각각 9.9%와 4.9%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2877만t으로 전년 동월(1억2962만 t) 대비 0.5%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항만 물동량 가운데 수출입화물은 1억618만t, 연안 화물 2259만t이다.

부산항과 대산항의 처리 물동량은 전년보다 각각 5.5%, 8.5% 증가했지만 포항항 물동량이 20.3%나 줄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월 대비 12.7%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공품, 기계류도 각각 9.8%, 8.4% 증가했다. 반면 양곡은 37.4%로 크게 감소했고 모래도 17.4% 감소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8950만t으로 전년 동월(9258만t) 대비 3.3% 감소했다. 대산항, 동해·목호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포항항과 부산항 등 대부분의 항만은 감소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화공품, 기계류 물동량이 각각 19.3%, 18.9% 증가한 반면, 양곡, 모래 등은 각각 44.4%, 17.5% 감소했다. 반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5% 증가한 236만 TEU(1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록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139만5000 TEU로 8% 증가했고, 환적 물동량은 94만6000 TEU로 9.5% 증가했다. 환적이란 컨테이너가 최종 목적지로 가기 전 중간 항구에서 다른 배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부산항이 9.4% 증가한 178만7000 TEU를 기록했다.

부산항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9.1% 증가한 88만5000 TEU를 처리했다. 환적 또한 국제 선사들의 동남아 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9.8% 증가한 90만2000 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17% 증가한 25만4000 TEU, 광양항은 4.9% 감소한 18만2000 TEU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